

주요 내용

1. [교권 실태 및 인식]

교사 10명 중 6명,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 선택 안 하겠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은퇴 세대의 소득 격차

2) 한국 취업자 고령화 현황



*사진의 출처는 ©뉴스시스

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교사 10명 중 6명,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 선택 안 하겠다!’

최근 초등학교 학생의 교사 폭행,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유명 웹툰작가의 교사 고소 사건 등 교권 침해 관련 이슈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교권 침해 사례는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고 학생 인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됐다. 급기야 이번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은 교사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집회로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원 인식 조사’를 보면 최근 교사들의 사기는 곤두박질치고 있었고(떨어짐 88%), 교직 생활에 불만족하고 있는 교사가 2명 중 1명(48%)에 달했다. 이 결과는 교사 10명 중 7명 정도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교사의 58%는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국민이 자녀의 직업으로 교사를 선호하는 비율은 56%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넘버즈 202호>는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 교권 침해 실태, 교권 인식 등을 살펴보는 한편 교사와 교육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함께 다루었다. 현재 한국사회 중심에 있는 교권 이슈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출처 자료 중 조사 대상인 '교원'은 '교사'를 포함하여 수업을 하지 않는 행정직 공무원(교장, 교감, 비수업 교사 등)을 통칭함. 교원 내 다수가 교사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리포트에서는 '교원'을 '교사'로 서술하여 설명함.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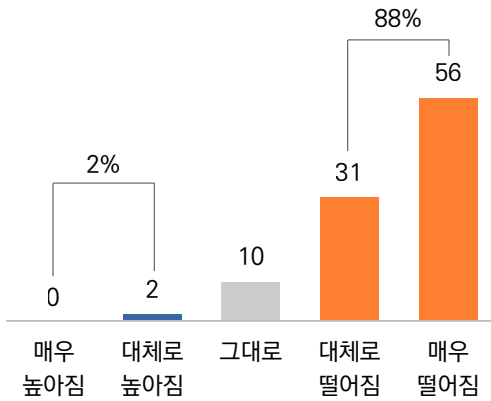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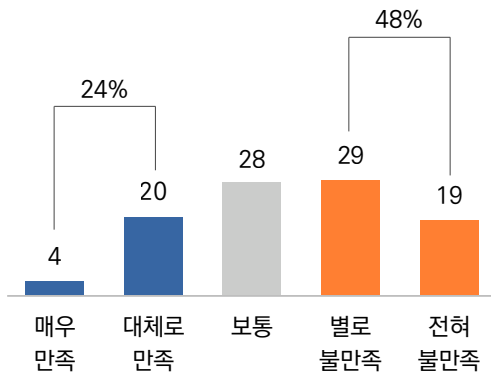
[교직에 대한 인식] 교사 2명 중 1명은 현 교직 생활에 불만족!

- ▶ 전국의 교원(유·초·중·고·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조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교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기준으로 교사의 절대다수(88%)가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는데, '매우 떨어짐' 비율이 무려 56%로 나타났다.
- ▶ 교직생활 만족도 또한 불만족이 48%로 만족 비율(24%) 대비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2명 중 1명은 현재 교직 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그림] 최근 1~2년간 교사들의 사기 변화 (교사, %)



[그림] 교직 생활 만족도 (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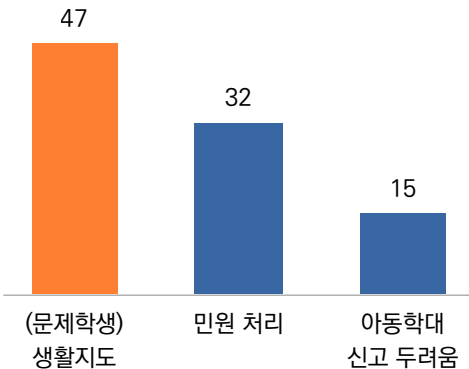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 인식 설문조사', 2023.05.15.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 온라인조사, 2023.04.28.~0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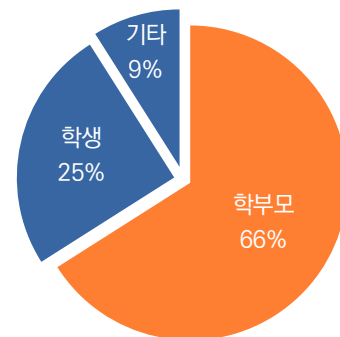
◎ 교사에게 스트레스 주는 대상, '학부모' 66%!

- ▶ 교사들에게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주는 원인을 질문한 결과, '문제학생 생활지도'가 4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민원 처리'(32%)와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15%) 순으로 나타나, 교사 본연의 업무 이외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 ▶ 주로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으로는 3명 중 2명(66%)이 '학부모'를 꼽아 '학생'(2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주는 원인 (교사, 상위 3위, %)



[그림] 주로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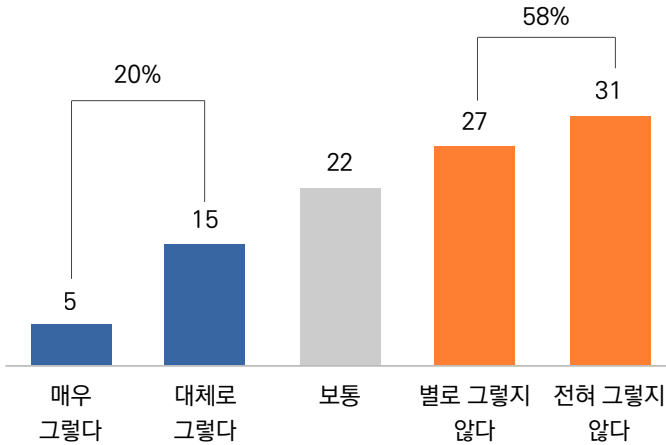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 2023.07.27. (전국 유·초·중·고 교원 32,951명, 온라인조사, 2023.07.25.~07.26.)

◎ 교사 10명 중 6명,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 선택 안 해!’

- ▶ 교사들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교직을 선택할까?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20%에 그쳤고, 교사 10명 중 6명가량(58%)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부정 응답률이 긍정 대비 3배나 높았다.

[그림]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 선택 여부 (교사, %)



*자료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 인식 설문조사', 2023.05.15.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 온라인조사, 2023.04.28.~0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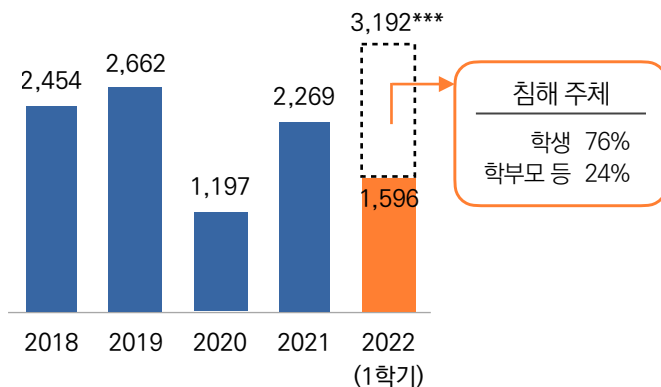
02

[교권 침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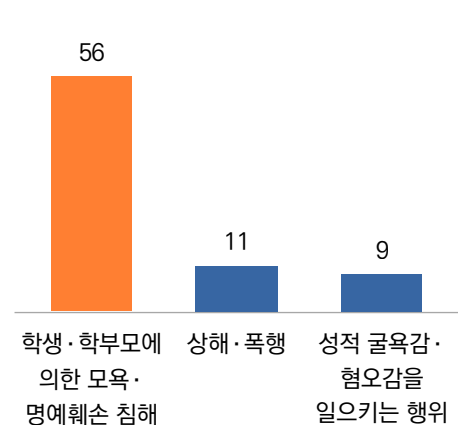
교권 침해, 지난 1년 사이 41% 증가

-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즉 교권 침해 행위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사에 대해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범죄,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하게 간섭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 이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8~2019년 약 2,500건 수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2022년은 1학기 기준으로 1,596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연간 건수로 추정해 보면(1학기 X 2배수) 3,192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이다.
- ▶ 교육활동을 침해한 주체는 학생(76%)이 학부모(24%)보다 훨씬 높았으며,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침해'(5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림] 교육활동 침해 건수**



[그림] 교육활동 침해 유형 (2022, 상위 3위, %)



*자료 출처 :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20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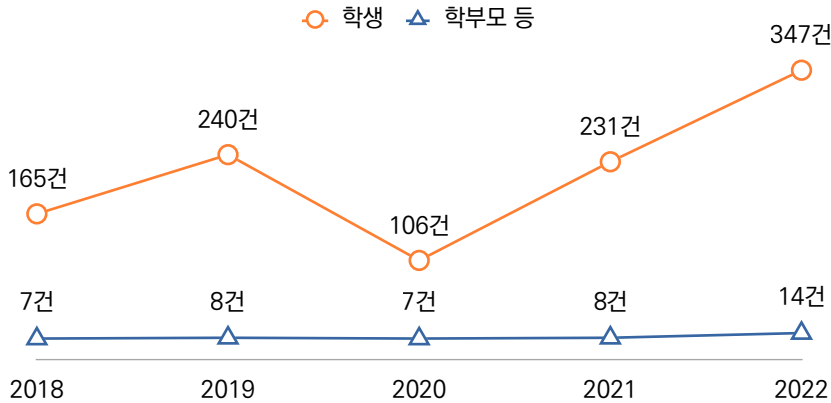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준

***2022년 1학기 침해 건수를 단순히 2배로 곱해서 연간 추정치를 산출하였음.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2년간 3.3배 증가!

- ▶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담임교사를 수십 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됐다. 이런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건수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폭행 건수는 1,089건,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건수는 44건으로 조사됐다.
- ▶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상해·폭행은 2020년 코로나시기 비대면 수업 등의 요인으로 감소했다가 그 이후부터 급증하여 2022년 학생과 학부모 각각 2018년 대비 3.3배,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교사 상해·폭행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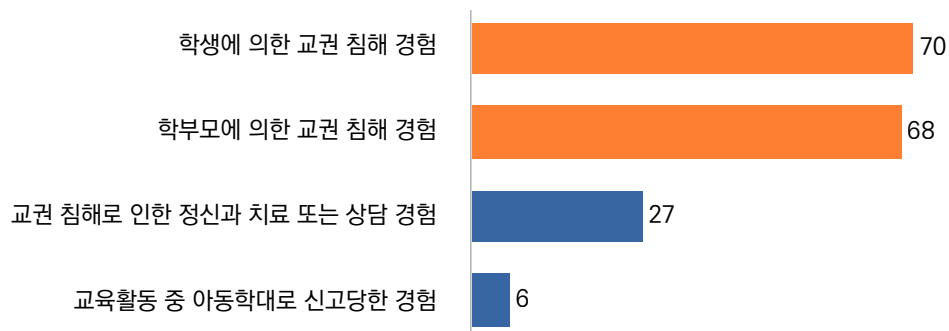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6학년 초등학생의 여교사 폭행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2023.07.19. (보도자료 중 '한국교원보호위원회 심의 기준' 자료에서 인용)

◎ 교사 10명 중 7명,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경험 있다!

- ▶ 교사노동조합연맹(20~40대 교사가 조합원 90% 이상)이 조사 발표한 최근 5년간 유초중고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 인식'을 살펴보면 교사 10명 중 7명 정도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 경험'도 27%에 달해 교사들의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림] 교권 침해 상황 인식 (교사, 최근 5년간, 각 질의에 '그렇다' 응답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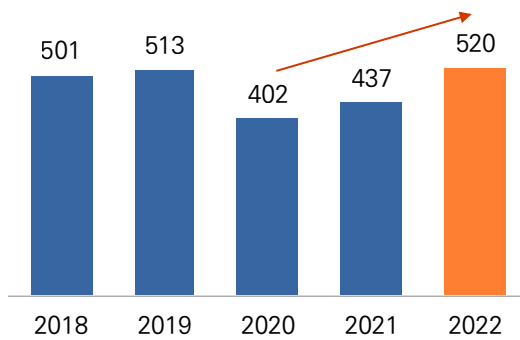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현장 인식 조사', 2023.06.08.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 유초등-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교원 11,377명, 온라인 조사, 2023.04.20.-0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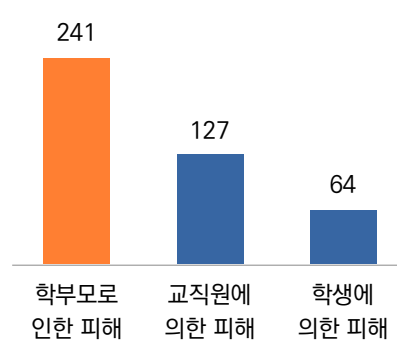
◎ 학부모의 교권 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학생의 4배!

- ▶ 교총에서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18년 501건에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402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 앞서 '교권 침해 주체'는 학생이 학부모 대비 높았으나, '교권 침해 피해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학부모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241건)가 '학생에 의한 피해' 상담 건수(64건) 대비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교권 침해 상담 건수 (건)



[그림] 교권 침해 주체별 상담 건수 (2022, 상위 3위, 건)



*자료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2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 2023.0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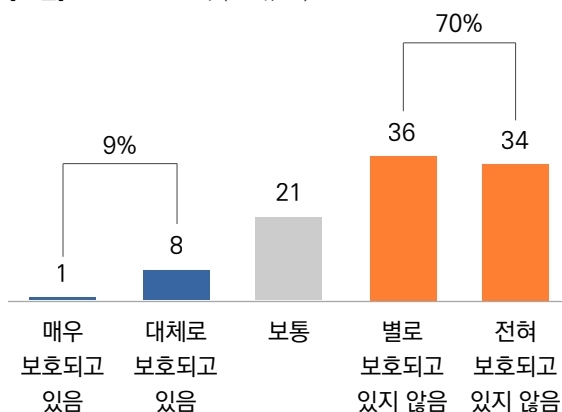
03

[교육 환경과 교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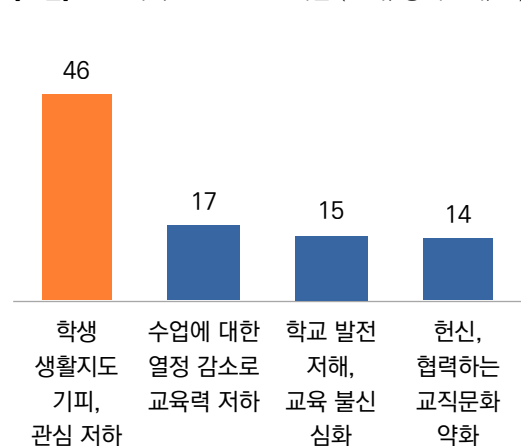
교사 10명 중 7명, '교권 보호되고 있지 않다'!

- ▶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그 결과, 교사 10명 중 7명은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보호되고 있다'는 비율은 9%에 그쳤다.
- ▶ 교권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46%)가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를 꼽아 교권 침해가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교권 보호 인식 (교사, %)



[그림] 교권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 (교사,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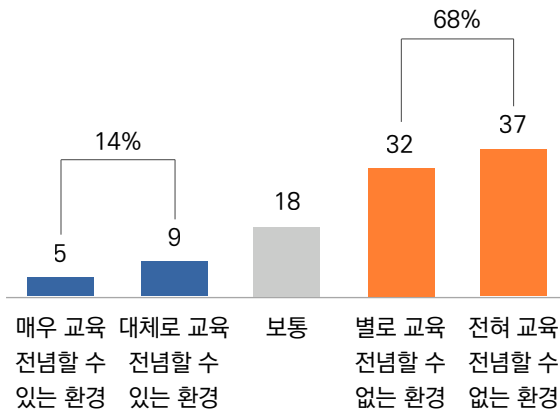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 인식 설문조사', 2023.05.15.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 온라인조사, 2023.04.28.~0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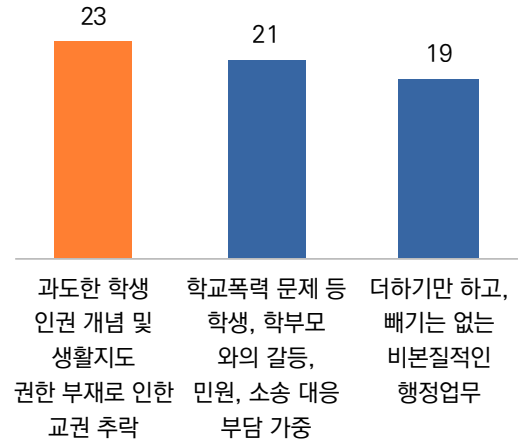
◎ 교사 10명 중 7명, '현재 학교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다'!

- ▶ 교사들은 현재 학교의 교육 환경을 어떻게 평가할까? 교사의 68%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응답했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란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 ▶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요인으로는 '과도한 학생 인권 개념 및 생활지도 권한 부재로 인한 교권 추락'(23%)과 '학교폭력 문제 등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소송 대응 부담 가중'(21%)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그림] 현재 학교의 교육 환경 평가 (교사, %)



[그림] 교육 전념할 수 없는 환경 요인 (교사, 3개 복수응답,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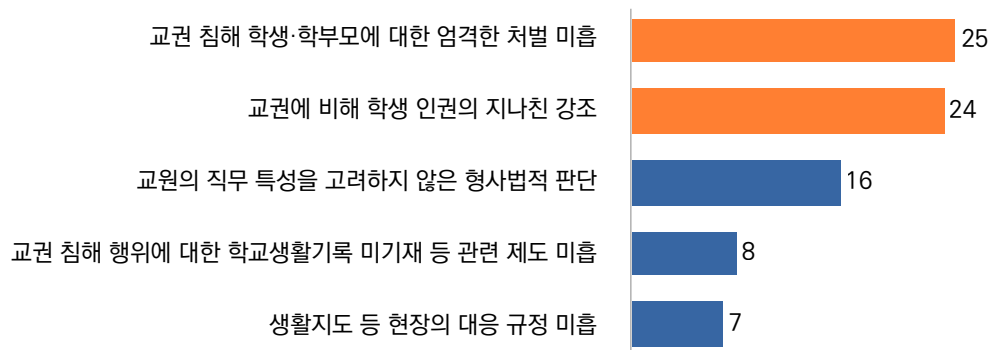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 인식 설문조사', 2023.05.15.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 온라인조사, 2023.04.28.~05.08.)

◎ 교권 침해의 원인은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 때문!

- ▶ 최근 교육부가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4명 중 1명은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25%)과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4%)를 교권 침해 사례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림]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 (교사, 3개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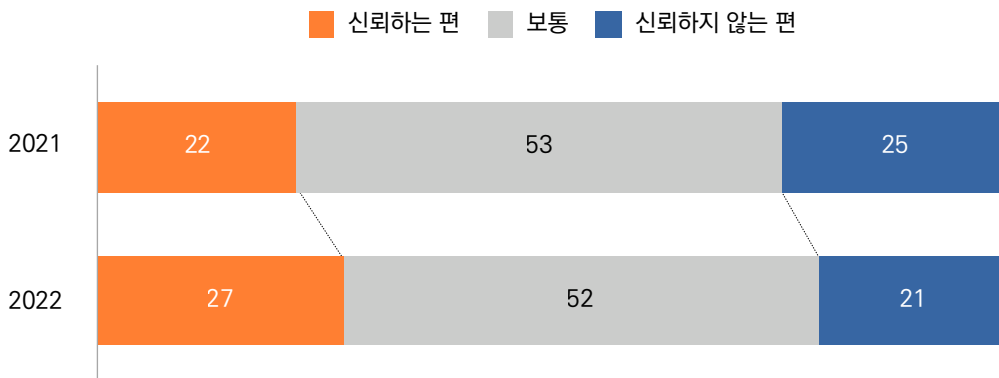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 인식조사', 2023.08.03. (전국 유·초·중·고·특수교 1,315개 학교 재직 교원 22,084명, 2023.07.03.~07.16.)

04

[일반국민 교권 인식] 교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 27%에 불과!

- ▶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99년 이후 매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는데 가장 최근의 2022년 조사 내용 중 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결과를 살펴보았다.
- ▶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2022년 27%에 불과했고, '보통' 52%, '신뢰하지 않는 편' 21%로 응답돼, 국민들은 교사들에 대해 대체로 높게 신뢰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공교육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림]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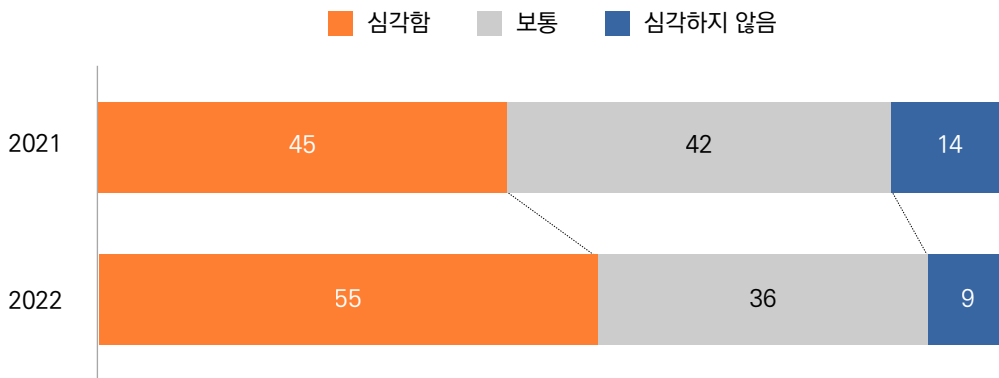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22.12. (만 19~75세 전국 성인 남녀 4,000명, 온라인조사, 2022.09.13.-09.29.)
 **5점 척도로 '매우+신뢰함, 보통, 전혀+신뢰하지 않음'의 비율

◎ 그러나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인식!

- ▶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어느 정도 침해되고 있는지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물었다. 그 결과, '심각하다(매우+심각함)'고 인식하는 비율이 2022년 55%로 2021년 대비 10%p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도 실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림] 교사 교육활동 침해 정도**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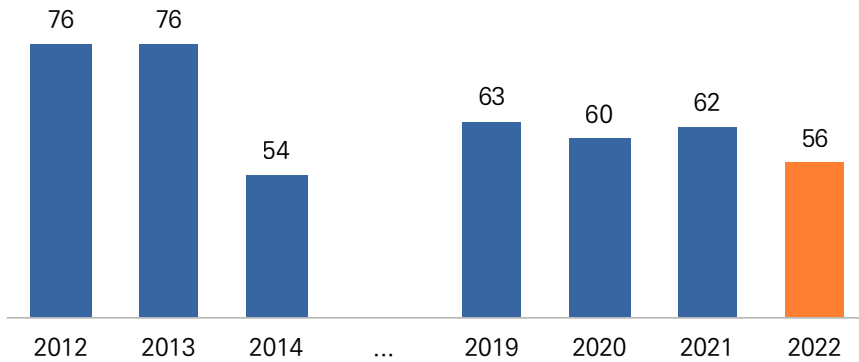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22.12. (만 19~75세 전국 성인 남녀 4,000명, 온라인조사, 2022.09.13.-09.29.)
 **5점 척도로 '매우+심각함, 보통, 전혀+심각하지 않음'의 비율

◎ 자녀가 교사 되겠다면? 긍정 비율 8년 만에 최저!

-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녀 직업으로 교사가 어떠한지를 물었더니,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2012년 76%에서 2014년 54%까지 떨어진 이후 60%대를 유지하다 2022년 56%로 8년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자녀 직업으로 교사 희망 긍정 비율 (일반 국민, %)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22.12. (만 19~75세 전국 성인 남녀 4,000명, 온라인조사, 2022.09.13.~09.29.)

"거구의 남자 중학생이 교무실에서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일이 있었다"며 "아이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제지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동료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다가 학부모에게 따귀를 맞는 장면을 보기도 했다."

"반에 한글을 익히지 못한 아이가 있어 학부모에게 '가정의 지도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연락했다가 국민신문고에 신고당했다. 교사가 한글 지도를 가정에서 맡겼다는 내용이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더 이상 귀담아듣지 않는다. '군사부(君師父)일체'라는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윤리는 그런 말이 있나 할 정도다. 그만큼 교사의 위상, 교권은 추락했다. 「넘버즈」 202호에 따르면 교권 침해 건수가 2022년 연말 추정 기준으로 3,192건으로 2021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이 교권 침해 활동의 53%가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침해'였고 11%는 '상해·폭행'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보고에 따르면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상담한 520건을 교권 침해 주체별로 분석하면 '학부모로 인한 피해'가 241건으로 '학생에 의한 피해' 64건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더욱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사의 70%는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9%만이 '보호받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교권 침해 환경은 어떤 결과와 영향을 초래할까?

첫째로 교사의 사기가 낮아졌다. 교사가 자살한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있기 전인 2023년 5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사기가 최근 1~2년 사이에 '떨어졌다'는 응답이 무려 88%였고 겨우 2%만이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둘째는 교직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추락했다. 먼저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20%만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절반이 넘는 58%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교사 5명 중 1명만

이 교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낄 뿐이었다. 자녀 직업으로 교사를 희망하는 비율이 2022년에 56%인데 이는 최근 8년 만에 최저치였다. 그만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떨어진 것이다. 셋째로 학생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교사들은 교권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 46%,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 17%로 응답했다. 교사의 역할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될 때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왜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2가지 주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이 25%였고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24%였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 학생 인권을 교권을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일종의 '제로섬' 관계 즉 학생 인권이 높아지면 교권이 낮아지고 교권을 높이려면 학생 인권을 낮춰야 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 인권을 제한하면 교권 침해는 막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인권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인 인간에게 부여한 존엄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1, 2위가 교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과 상해 폭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교권 이전에 교사의 인권 문제이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인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쪽의 인권을 높인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두 인권이 모두 보장되면서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사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것은 교육 현장의 두 주체인 교사와 학생을 대립적인 관계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으므로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 '학부모가 뺨 때리고 남학생은 난동...' CCTV 달아달라! 교사들 호소, 머니투데이, 2023. 08. 07. (<https://v.daum.net/v/20230807202618147>)

1.[은퇴 세대의 소득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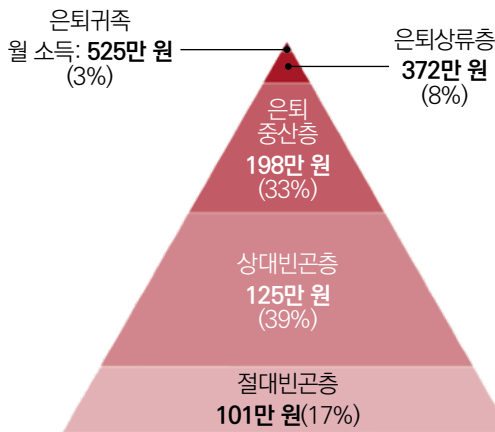
2.[한국 취업자 고령화 현황]



은퇴 가구 절반 이상(56%), 노후소득 빈곤층!

- ▶ 우리나라 국민은 은퇴 후 노년기의 노후소득이 얼마나 될까? 60세 이상 완전 은퇴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총당' 정도에 따라 은퇴귀족, 은퇴상류층, 은퇴중산층, 상대빈곤층, 절대빈곤층의 5단계로 분류한 소득 등급표를 '노후소득 피라미드'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살펴본다.
- ▶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의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 노후소득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 층인 '은퇴 귀족층'은 '생활비가 충분히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으로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월 소득**은 525만 원(세전)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하층인 '절대빈곤층'(17%)의 경우 월 소득이 101만 원(세전)으로 은퇴 귀족층 소득의 1/5수준에 불과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대빈곤층'(39%)과 '절대빈곤층'을 합한 비율은 56%로 은퇴 가구 절반 이상이 빈곤층인 셈이다.

[그림] 노후소득 피라미드 (60세 이상 은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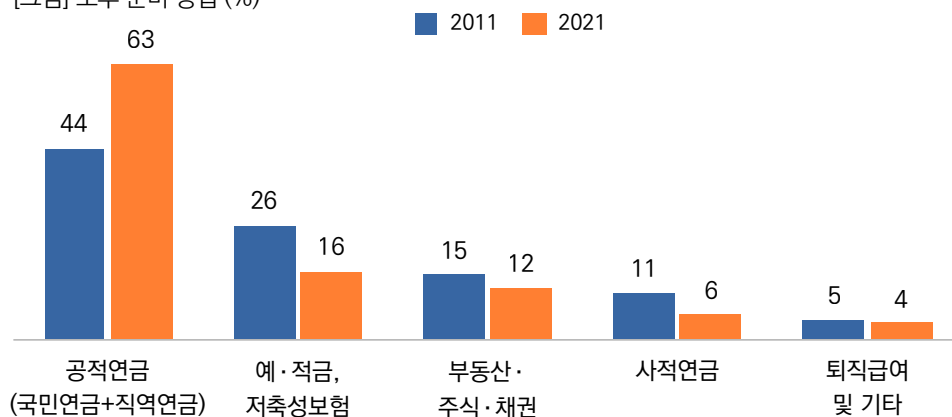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조선일보, '퇴직 후 매달 198만원 꽃하면 중산층... 은퇴 귀족층은?', 2023.07.07.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3/07/07/K2WX4M2C5VCKBEFO2XJPKQCH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월 소득 : 근로 소득, 연금, 재산 소득, 주식·이자 등 금융 소득, 기타 사적 소득 등

◎ 노후 준비 방법으로 3명 중 2명 가까이는 '공적연금' 꿈어

- ▶ 65~74세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방법을 질문한 결과, '공적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이 63%로 가장 높았는데, 10년 전 대비 19%p나 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예·적금, 저축성보험' 16%, '부동산·주식·채권' 12% 등의 순이었다.

[그림] 노후 준비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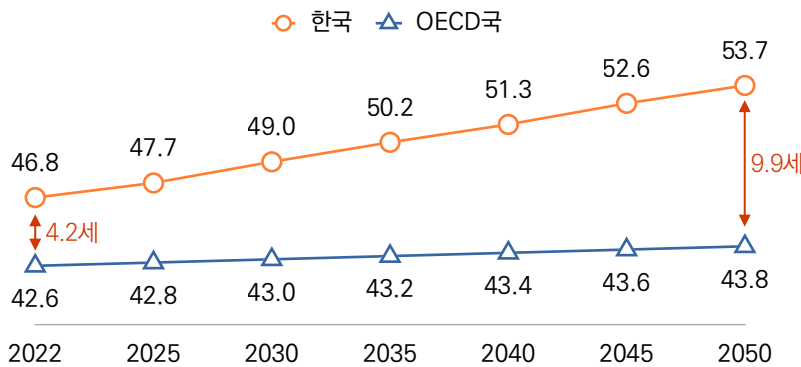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조선일보, '퇴직 후 매달 198만원 꽃하면 중산층... 은퇴 귀족층은?', 2023.07.07.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3/07/07/K2WX4M2C5VCKBEFO2XJPKQCH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직역 연금 : 국가 기관, 지방자치 단체 등의 종사자가 받는 연금(예: 공무원 연금)



2050년 한국 취업자 평균연령 54세까지 높아져!

- ▶ 약 30년 후인 2050년 한국 취업자 평균연령은 어떻게 될까?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에서 따르면 2022년 한국 취업자 평균연령은 약 46.8세이고,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결과, 2050년 취업자 평균 연령은 53.7세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 ▶ 이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OECD 국가 평균 취업자 연령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격차가 2050년이면 9.9세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한국 vs OECD국가 취업자 평균연령 전망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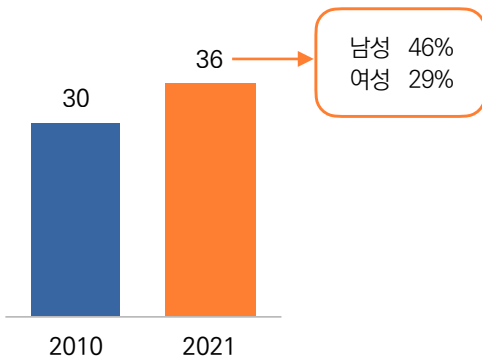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도자료, 2023.07.21.

◎ 한국의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다른 나라 대비 매우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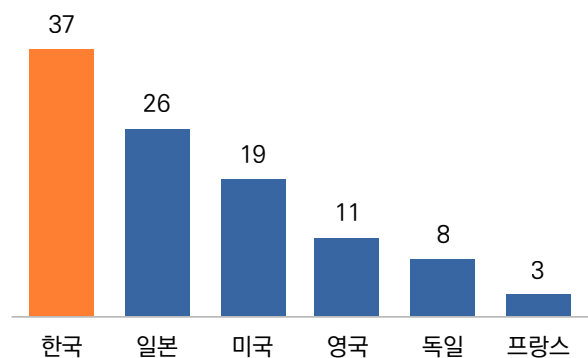
- ▶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어떤 상황인가? 2021년 기준 36%로 과거 10년 전 대비 6%p 상승했고, 노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로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 ▶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2022 기준)이 37%로, 주요 선진국인 일본, 미국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9%)보다 2배, 프랑스(3%)와 비교했을 때는 12배나 높은 수치이다.

[그림]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65세 이상, %)



*자료 출처 : 통계청(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주요국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2020, 65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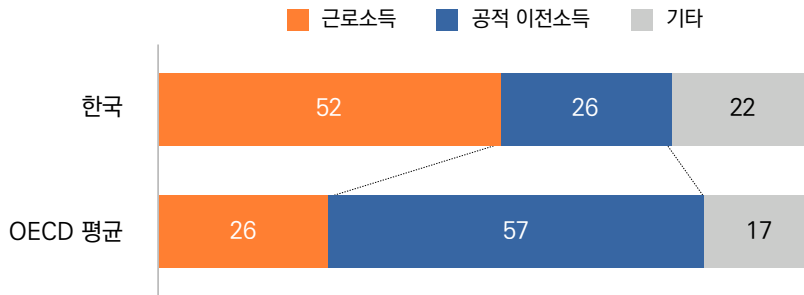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ILO(국제노동기구)STAT (2022)

◎ 한국 노인의 주요 소득 절반 이상은 근로소득

- ▶ '한국과 OECD 국가 평균 노인 소득 구성비'를 살펴보면 OECD 평균은 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공적이전소득(국가에서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이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 반해 한국은 2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노인 소득 구성 비중 (2018, 65세 이상)



*자료 출처 : OECD(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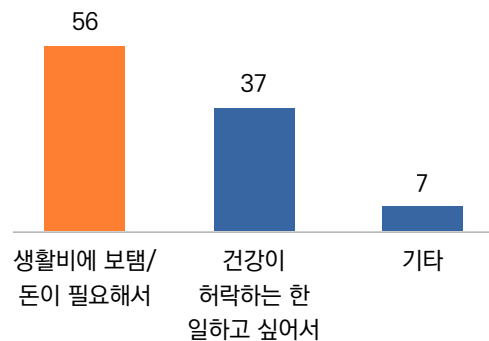
◎ 노인 노동자 일하는 이유, '돈이 필요해서' 56%

- ▶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들의 월 평균 임금을 확인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273만 원, 2021년 기준, 통계청) 대비 100만 원 정도 낮은 167만 원이었고, 주 평균 노동시간은 34시간으로 주 5일제로 환산하면 하루 7시간가량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 65~79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가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비에 보탬/돈이 필요해서' 56%,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7%)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노인 노동자 근로 현황 (60세 이상, 2021년 기준)



[그림] 노동시장 참가 이유 (2022, 65~79세, %)



*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1.08. / 2022.05.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53호 \(2023년 8월 1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내년 총선 결과 기대, 총선 전 신당 창당 인식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102호 \(2023년 8월 1주\)](#)

-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주변 5개국 호감도, 부동산 정책 평가 등

◎ 사회 일반

[한국인 성인 행복지수...10점 만점에 평균 6.68점으로 낮은 편](#)

연합뉴스_2023.08.03.

[한국, 동성 간 성접촉으로 에이즈 확산](#)

크리스찬타임스_2023.07.28.

["30대 이상 워라밸·삶 만족도, 기혼자가 '솔로'보다 높다"](#)

문화일보_2023.07.30.

["성경험 여성 39세까진 절반이 피임...연령 높을수록 피임 안해"](#)

연합뉴스_2023.07.31.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결혼생활에 부정적 영향](#)

더미션(국민일보)_2023.08.01.

[이민 받아야 한다는데...민심은 아직? \[데이터로 보는 세상\]](#)

매일경제_2023.07.21.

['나 혼자 산다' 독거노인 200만명 육박...고령층 5명 중 1명꼴](#)

매일경제_2023.08.03.

[가장 오래 일한 직장 근속기간 평균 15년, 현실 정년 49세](#)

중앙일보_2023.07.26.

[\[기획\] 간병이 필요한 시대에 사는 우리 - 간병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리서치(여론속의여론)_2023.07.25.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착각...1만시간 법칙은 틀렸다"](#)

연합뉴스_2023.07.29.

[작년보다 더 가난해졌다...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늘어난 시대](#)

매일경제_2023.08.01.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 韓, 가난하게 살지 않을 준비됐나요](#)

주간동아_2023.08.02.

[관광객 다 뺐졌다...한국인도 300만명, 우르르 몰려간 이 나라](#)

중앙일보_2023.07.31.

◎ 경제 / 기업

[여성근로자 급여는 '남성 60% 수준'...연평균 2천만원 덜 받아](#)

연합뉴스_2023.08.0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작년 한국 1인당 GDP, 주요국 중 세번째로 많이 줄었다](#)

연합뉴스_2023.08.02.

[어른 되자마자 빛의 굴레...20대이하 은행 연체율 역대 최고 수준](#)

연합뉴스_2023.08.07.

[근무시간 외 업무 카톡... 상관은 "급한 일" vs 사원은 "갑질"](#)

국민일보_2023.08.07.

["해외 휴양지서 즐기며 일해요"... 日-태국-호주서도 '워케이션'](#)

동아일보_2023.08.05.

◎ **건강**

["한국인 치매 발병 가장 큰 영향은 '신체활동 부족'"](#)

연합뉴스_2023.08.05.

["당뇨병 환자, 흡연량 줄여서는 뇌졸중 위험 낮추지 못해"](#)

연합뉴스_2023.08.03.

[노인, 만성질환 늘었지만 덜 늙었다...“의료접근성 향상 덕분”](#)

중앙일보_2023.08.02.

◎ **국제**

[일본 교사, 정신질환 이유 이직 최다...업무 과중도 원인](#)

연합뉴스_2023.07.29.

['기시다, 8·15에 한국에 반성 언급해야 하나' 日 여론조사보니](#)

매일경제_2023.07.30.

◎ **기독교 / 종교**

[개신교인 8% 넘게 이단... 10명 중 4명은 가족 핏에 수령으로](#)

더미션(국민일보)_2023.08.07.

[개신교 챗봇 '주님시' 사용해보니 \[백문이 불여IT견\]](#)

매일경제_2023.07.29.

[줄줄이 짐싸는 20대 간사... “선교단체 벽 허물고 교단과 동행을”](#)

더미션(국민일보)_2023.08.02.

[美 74% “하나님 계신다”... 20년 전보다 16% 감소](#)

크리스천투데이_2023.08.03.

[미국인의 우선순위 취미·돈·공동체가 종교 대체해](#)

크리스찬타임스_2023.07.2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전 세계가 보는 미국의 종교성](#)

[크리스찬타임스_2023.08.05.](#)

[교회 빠지는 이유?...‘피곤해서, 더 자고 싶어서’등 다양](#)

[미주한국일보_2023.08.01.](#)

◎ 기획기사 : 만인에 대한 만인의 갑질 공화국, (중앙선데이)

① [“내 돈·세금으로 살잖아” 보상 받으려는 심리, 갑질로 폭발](#) _2023.08.05.

② [수직적 서열주의 문화 탓, 권력 쥐면 포식자처럼 군림](#) _2023.08.05.

③ [하청·알바 근로자 70~80% 갑질 경험, 피해자가 가해자 되기도](#) _2023.08.05.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학교,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신규 후원 |

새중앙교회(담임목사 황덕영), 김석선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